안철수 "끝까지 같이 못할 분 있더라도 가야할 길 가겠다"

바른정당 분당…안철수와 호남의원 선택은?

국민의당 지도부 바른정당과 정책연대 계속 추진할 듯 호남 민심과 괴리된 연대 시도 땐 중진들과 충돌 불가피

바른정당 분당이 현실화하면서 국회 의 석 수의 변화는 물론 정치권에 상당한 파 장을 던지고 있다. 중도세력, 나아가 여권 으로 정계개편이 확산할 가능성이 조심스 럽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. 특히 보수 야권 재편으로 국민의당의 행보가 주목을 받게 됐다.

◇바른정당 분당 현실화=바른정당의 집단탈당 사태는 13명의 의원이 한국당으 로 복당한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로, 1월24일 33명의 국회의원으로 창당한 바른정당에는 이제 11명의 '자강파' 의원 만 남게 됐다.

이에 따라 그동안 여야 4당 체제로 운영 돼온 국회는 당분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(121석)과 제1야당인 한국당(107석), 그리 고 국민의당(40석) 등 여야 3당 체제로 재 편된다. 탈당 의원들의 복당이 이뤄지면 한국당 의석수는 현재 107석에서 116석으 로 늘면서 민주당의 '원내 1당' 지위를 위 협하게 된다.

◇안철수와 호남 의원의 선택은?=정 치권 일각에서는 보수야권 재편이 정계개 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. 당 장 바른정당 잔류파 내부에서는 '중도'를 표방하는 국민의당과의 정책 및 선거 연 대, 그리고 중도통합론이 다시 급부상할 수 있다. 국민의당 최대 주주인 안철수 대 표와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 대부분을 차지 하는 호남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주목받는 이유다.

일단 민주당은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 통령의 출당으로 인해 갈등이 심한데다 바

른정당 내에서도 추가 탈당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당장은 인위적 정계개편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 다만, 사안 별로 국민의당과 연대를 추진할 가능성은

하지만, 국민의당 지도부는 바른정당과 정책연대에 적극적이다. 바른정당과 손잡 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왔던 안철수 대표는 5일(현지시각) 이스라엘 방문 중에 바른정당 집단탈당 소식을 접한 뒤, "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"면서 양당의 정책연대 는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다. 바른정당과 정책·선거연대에 관한 당내 기류가 부정 적으로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"저는 꼭 그렇게 생각 안 한다"며 "이것도 어느 정 도 예견된 상황 아닌가"라고 반문했다.

김동철 원내대표도 "중도개혁세력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데다 국민 눈높 이에서 하는 정치에서 의석수는 중요하지 않다"며 "그런 의미에서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는 계속 추진할 예정"이라고 밝

하지만,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이 같 은 당 지도부의 생각에 반기를 들 가능성 이 크다. 당장 박지원 전 대표와 유성엽 의 원은 이날 그동안의 안 대표 행보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.

더욱이 이 같은 호남 중진의 비판에 대 해 안 대표는 결전을 벌일 자세마저 보이

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겨 냥한 당내 일부의 비판에 대해 "정상적인 문제 제기의 범위를 넘었다"며 "모두 함



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이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론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. "바른정당 탈당합니다"

/연합뉴스

께 가길 바라지만, 응당 가야 할 길을 비정 상으로 인식한다면 끝까지 같이 못할 분이 있더라도 가겠다. 반패권과 중도혁신의 길 을 포기할 수 없다"고 말했다. 당내 일부 세력의 이탈을 감수하더라도 바른정당과 의 정책연대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

국민의당 관계자는 "바른정당과 정책

연대로 당장 당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약하지만 호남 민심과 괴리되는 사안에 대 해 연대가 시도될 경우에는 안 대표와 호 남 중진들 간에 충돌이 불가피할 것"이라 며 "나아가 여당의 상황에 따라 여권발 정 계개편 시도도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"고 전망했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바른정당 '11·13 전당대회' 예정대로

유승민 후보 등 강행 결정 흥행효과는 기대 못 미칠듯

바른정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'11·13 전당대회'가 6일 '통합파' 의원들 의 집단탈당 선언과 2명의 당권 주자의 사퇴에도 예정대로 치러진다.

이날 오전 박인숙·정운천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"우 리의 사퇴로 바른정당이 쪼개지지 않고 단합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"며 후 보직에서 전격 사퇴한다고 밝혔다. 하지 만 통합파 의원들 9명은 이들의 사퇴에 도 20분 후에 바른정당 탈당을 선언했다.

이에 유승민 의원과 하태경 의원, 정 문헌 전 사무총장 등 3명의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유 의원실에서 모임을 갖고 전대를 '강행'키로 결정했다. 당 재 정위원장 출신인 박유근 후보는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뜻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.

하태경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"남은 후보들과 논의 끝에 전당대회를

끝까지 사수하기로 했다"며 "기존에 계 획된 스케줄에 따라 전대를 치를 것"이 라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남은 4명의 후보는 이날 오 후 2시로 예정된 지상파 방송 3사 초청 토론회에서 3번째 경선토론을 벌인다.

바른정당은 오는 주중과 주말에 진행 될 투표·여론조사 결과를 합쳐 오는 13 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3명을 지명하게 된다. 유일한 여성 출마자였던 박 의원 이 사퇴하고, 출마자가 모두 4명으로 줄 어들면서 남은 후보자들은 모두 당 지도 부에 입성하게 됐다.

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유 후보의 대 표 당선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하태경 정문헌・박유근 후보 간 최고위원직 '순 위'를 가리는 표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.

그러나 분당 사태와 아울러 2명의 후 보가 중도하차면서 '반쪽 전대'라는 지 적은 후보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 로 보인다. 또 '컨벤션 효과(흥행 효과)' 도 당초 기대에 훨씬 못 미칠 전망이다.

비용기보증급 1522-0082

/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www.kora.or.kr

호남 중진 의원들 "바른정당과 정책연대 전략적 실패"

박지원 "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" 유성엽 "안대표, 당의 미래 위해 중대결단 필요"

바른정당이 결국 분당되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정책연대를 추진했던 '지도부 책임론'이 제기되는 등 내홍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.

안철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바른정당과 의 정책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, 당내에서는 호남 중진 의원들 을 중심으로 전략적 실패를 질타하는 목소 리가 나오고 있다.

일단 안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등 지 도부는 바른정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해 진 용을 정비하면 당내 합의가 모아진 대로 정책연대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 타내고 있다.

하지만 지도부를 바라보는 호남 중진 들의 시선은 냉랭하다. 박지원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"(바른정당과) 한 것이다. 통합·연합·연대를 주장하던 국민의당 이 어떻게 되겠느냐. 닭 쫓던 개 지붕 쳐 다보는 신세가 됐다"며 "그 누구도, 당 도 국민의당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한다. 불필요한 당내 갈등을 거둬내고 개원초 심 선도정당으로 가면 승리한다"고 강조

바른정당과의 연대에 비중을 둔 안 대 표를 비판하는 한편 캐스팅보트를 쥔 정 당으로서 정국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국민의당이 나갈 길이라는 지론을 재확인

전북의 유성엽 의원은 소속의원 SNS (소셜네트워크서비스) 방에 "대선에 패 배한 사람은 죄인이다. 반성하고 자숙해 야 정상"이라며 "지금이라도 당의 미래 를 위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"며 강 하게 안대표를 비판했다.

정치권에서는 7일 안 대표가 귀국하면 향후 당의 진로를 놓고 안 대표 진영과 호 남 중진들과의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.

/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빈용기 보증금 제도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! 보증금 받고!

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,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,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





